



[뉴스] '외국인력 공백' 30~49인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허용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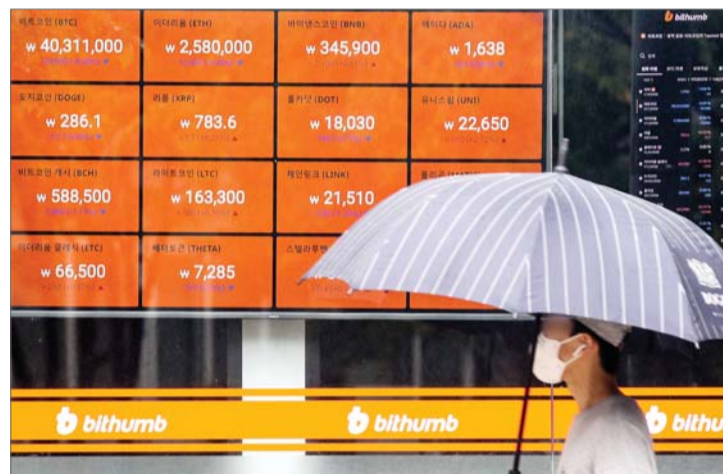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3281.78 (0.00)	코스닥	1038.18 (0.00)
금리 (국고채 3년)	1.484 (+0.015)	환율 (USD-달러)	1135.00 (+1.90) (2일)

# 벼랑 끝 코인거래소, 투자자 어찌나 면책 거절당한 은행 “신규제휴 없다”

(실명계좌)

실명계좌 면책 기준 요구에 은성수 “생각도 말라” 못박아 은행권, 추가 제휴 어려워져 4곳 제외 수십곳 줄폐업 위기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가 하락했다는 소식으로 비트코인이 4% 가까이 급등하는 등 암호화폐가 일제히 급등한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호화페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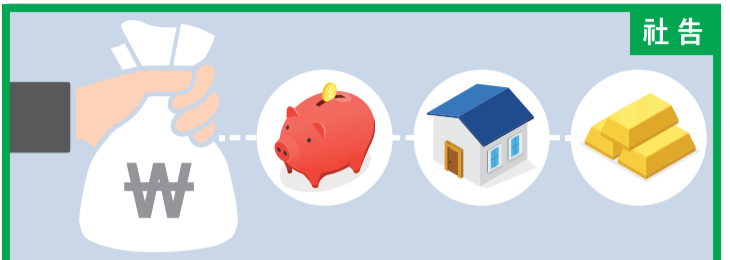
금융당국이 가상자산거래소의 불법자금 거래 시 1차 책임은 ‘은행’이라고 못박으면서 은행들이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대형 암호화폐거래소 4곳(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뺀 나머지 수십 개 거래소가 줄폐업 위기에 몰렸다. 금융당국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거래소만을 대상으로 투자자 자금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다수의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케이뱅크는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계약을 연장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실명계좌가 연계돼 있는 곳은 4개 거래소로,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

신한은행은 코빗, 케이뱅크는 업비트와 거래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중하게 제휴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계약 기간을 연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준의 위험평가를 적용해 거래소와의 계약 갱신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FIU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위해선 ▲은행 실명계좌

발급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임원의 범죄사실 없음 등의 필수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은행 “면책없인 추가 거래 어려워” 문제는 주요 은행들이 4대 거래소를 제외한 타 거래소와는 제휴는 미루고 있다는 것.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사기가 은행의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은 중소거래소와는 거래하지 않겠

다는 설명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의 자금이 불법자금으로 이용될 경우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실명계좌를 받아주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에서 거래소의 금융사기에 대해 면책을 주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실명계좌 연동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심사, 검증과정에서 은행의 과실이나 책임사유가 없다면 거래소 사고와 관련해 은행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들이 면책기준은 생각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메트로경제 ‘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 2 부동산·주식·코인의 미래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이 오는 7월 20일(화) ‘2021 100세 플러스 포럼’ 시즌2를 개최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도 국내의 경제는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테크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은 지난 3월에 이어 ‘100세 시대 재테크 전략’ 시즌2 포럼을 통해 그 해답을 모색합니다. 이번 시즌2에서는 부동산 절세전략을 비롯해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전략, 가상화폐 시장의 현재와 미래를 짚어 봅니다. 시중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고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폭넓은 재테크 전략이 절실합니다. 이번 포럼에선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의 부동산 세테크 전략을 비롯해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주식투자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알고란 고란 대표(전 중앙일보 기자)가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토란 같은 강연을 펼칩니다.

- ◆ 행사명 : 2021 메트로 100세 플러스 포럼(시즌2)
- ◆ 주 제 : 부동산 세테크, 주식-가상화폐의 미래
- ◆ 일 시 : 7월 20일(화) 14:00~17:00 (VIP 티타임 13:40~14:00)

구분	시간	프로그램
참가등록	13:00~14:00	참가접수 및 등록 VIP 티타임 : 13:40~14:00
개막식	14:00~14:20	<축사> 김도인 금융감독원 부원장 <개회사> 이창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
강연	14:20~15:10	호지영 우리은행 세무사 - 부동산 세테크, 증여 vs 양도
	15:10~16:00	윤지호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주식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
	16:00~16:50	고란 알고란 대표, 전 중앙일보 기자 -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

- ◆ 장 소 : 서울 명동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컨벤션홀)
- ◆ 방 식 : 50명 참석(선착순 참가 신청) 및 웨비나(온라인 진행)
- ◆ 문의 및 참가 신청 : (02)721-9826, e-메일 forum@metroseoul.co.kr (사전등록 참가비 무료, 현장등록 5만원)
- ◆ 주 최 :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



# 구독경제 힘 신는 이통사... 40조시장 선점 경쟁

KT, AI 기반 플랫폼 선배 LGU+, VIP 등 차별화 혜택 SKT도 하반기 본격 출격



KT는 전국 580여 개 매장을 보유한 커피 브랜드 ‘할리스’와의 제휴를 통해 ‘시즌X할리스 구독’ 서비스를 출시했다. /KT

이동통신사들이 연간 4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구독경제 시장 경쟁에 본격 나섰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구독경제 플랫폼 사업 진출 계획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구독 서비스를 본격 출시할 계획이다. 또 KT는 ‘계입박스’, ‘시즌X할리스’ 제휴구독서비스 등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으며, LG유플러스는 멤버십을 강화하면서 VIP 등급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구독 서비스를 이달 선보였다. 최근 포털을 비롯한 각 산업군에서 구독경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이통사들은 구

독경제 서비스에 기존 멤버십 제도를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크고 가입자 이탈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점이 있어 구독 서비스를 점차 확대하고 있다. 또 구독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면 통신 위주 사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수익모델로 키울 수 있게 된다.

KT경제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콘텐츠와 비콘텐츠 영역을 합한 국내 구독경제 시장 규모는 2016년 25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40조1000억원 규모로 성장해 54.8%라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이통3사 중 SKT가 가장 공격적인 행보에 나서, 지난 2월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인공지능(AI) 기반 구독형 플랫폼을 출시해 구독형 사업 진출을 선언했으며, 3분기 서비스를 정식 선보일 계획이다. 미디어와 커머스 중심 멤버십 형태의 구독패키지와 개별 구독 서비스 두 가지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SKT는 오는 2023년까지 구독형 상품 가입자수 2000만명, 이를 통해 6000억원의 매출을

거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KT는 플로, 웨이브, 클라우드게임 등 기존 SKT 고객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구독형 서비스 사업을 전개해 진검승부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는 통신 영역을 벗어나 교육, 렌탈,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제휴를 통해 고객에게 임팩트 있는 구독형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케팅을 위해 통신사 멤버십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증시에서도 SKT가 새로 출시하는 구독 서비스 성과로 주가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4면에 계속> /채윤정 AI전문기자 echo@

# 코로나 확진자 743명 ‘주말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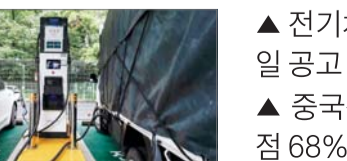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코로나19 확진자가 800명에 육박하며, 주말 기준으로는 올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시행 예정이던 수도권 거리두기 완화는 일주일 연장된 상태지만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면에 계속> 4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 /이세경 기자 seilee@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백신 1차 접종 30% 육박... 완료자는 10% 넘어서  
▲ 흥대 펍·영어학원 301명째... 강릉 축구단서 집단감염 /사진 뉴시스

▲ 화이자 맞으려 모퉁 ‘허위 지원’ 우려 현실화... ‘원서접수 조기마감 속출’  
▲ 공정위, 납품업체 ‘갑질’ 혐의 등 쿠팡 조사 착수



▲ 전기차 급속충전기 요금 오른다... 내일 공고 /사진 뉴시스  
▲ 중국산 ‘알몸김치’ 파문에도... 음식점 68% “국산으로 안 바꾼다”